

## ■ 폴란드 정부, 청정에너지 산업을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본격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 선언

- 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경제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폴란드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, 탈석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.<sup>1)</sup>
  - Tusk 총리는 향후 10년간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고, 풍력발전소를 현대화 해 6GW의 신규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.
  - Tusk 총리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 확대가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.
  - 폴란드는 높은 석탄 의존도로 인해 현재 EU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,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.
  - ※ 폴란드의 석탄화력 발전비중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이며, 2022년 약 70.8%이던 석탄화력 발전비중은 2023년 약 60.4%로 감소하였음.<sup>2)</sup>
- 또한, Tusk 총리는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.<sup>3)</sup>
  - 현재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Westinghouse Electric과 함께 발트해 연안에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, EU집행위에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승인을 요청함.
  - 폴란드는 2035년까지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, 이 중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감독하는 국영기업 Polskie Elektrownie Jadrowe에 600억 즈워티(154억 5천만 달러)를 투자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임.
- 폴란드는 EU 집행위에 제출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(NECP) 초안에서 2030년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56%로 설정하였음.<sup>4)</sup>
  -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.4% 감축하고,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 대비 16.7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1) BloombergNEF, 2024.10.17.

2) BloombergNEF, 검색일 2024.10.18.

3) Reuters, 2024.10.17.

4) Reuters, 2024.9.6.